[the300]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뒤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4.05.16.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제22대 첫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당선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결과에 유감을 표한 정청래 최고위원을 향해 "당선자들의 판단과 당원들을 분리시키는 갈라치기를 하지 말라"며 불쾌감을 표했다.우 의원은 17일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정 최고위원은 상당히 책임 있는 국회의원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아주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들이 저한테 무슨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추미애 당선인을 더 바랐던 심정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저도 그렇게 대충 살아온 사람이 아니다. 지난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할 때 15일 동안 저도 목숨을 건 단식을 했고,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흉상 이전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싸워왔고 지금까지 지켜왔다. 당원들이 지켜보시면 아실 것"이라고 햇다. 또한 "당원과 국민들이 뽑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고 당선자들"이라며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당원의 뜻과 완전히 배치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걸 너무 지나치게 분리해 보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경선 결과 우 의원이 당선되자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당원의 주인인 정당, 아직도 갈길이 멀다"며 "상처받은 당원과 지지자들께 미안하다. 당원과 지지자분들을 위로한다"고 남긴 바 있다. 당원의 지지가 높은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낙선한 것에 대한 불만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우 의원을 뽑은 이들이 누군지 색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색출하다니요"라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편 우 의원은 다음달 중으로 국회 개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우 의원은 "협상을 존중해 잘 이끌어나갈 생각이며 합의가 안 된다면 여야가 합의해 만든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국회를 빠른 속도로 개원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회의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는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우 의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된 법안을 모두 상정할지를 묻는 질문에 "국민에게 이득이 되느냐, 국민의 권리를 지키느냐를 기준으로 볼 것"이라고 했다.